

2019년 4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시즌 기대로 상승 전환 성공

팩트셋, S&P500 1Q 영업이익의 추정치 상향(yoy -4.3% → -3.9%)

1분기 미국 영업이익의 둔화폭 축소

미 증시는 미-중, 미-EU 간 무역 분쟁 우려를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이 1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지난주 대비 둔화폭이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낙폭 축소. 특히 상향조정이 컸던 산업재, 일부 헬스케어 등이 상승 주도(다우 +0.42%, 나스닥 +0.02%, S&P500 +0.16%, 러셀 2000 -0.12%)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4월 18일 기준 S&P500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감소 했을 것으로 추정. 이는 지난주(yoy -4.3%) 보다 0.4%p 상향 조정된 수치. 특히 양호한 실적 발표 했던 금융이 지난 주 대비 1.6%p 상향조정 되었으며, 필수소비재(+0.9%p), 산업재(+0.7%p), 헬스케어(+0.7%p) 등이 이를 주도

시장참여자들은 최근 1분기에 이어 2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적 시즌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 특히 기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이어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져 있음. 특히 S&P500의 12m Fwd PER이 16.8 배를 기록해 5년평균(16.4 배)를 훌쩍 넘어서 있음. 이런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의 둔화가 축소되었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1분기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율이 78%를 기록 중이지만 매출액 서프라이즈율은 53%에 불과. 더불어 1분기 영업이익의 둔화폭이 축소되었으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되고 있는 점도 부담(2Q S&P500 yoy -0.5%). 이 영향으로 오늘 미 증시는 반등에는 성공 했으나, 사상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상승폭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S&P500 1분기 영업이익 추정					Global Indices					
섹터	12/31	4/12	4/18	조정폭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헬스케어	9.2%	3.7%	4.4%	+0.7%	KOSPI	2,213.77	-1.43	홍콩항셱	29,963.26	-0.54
유틸리티	3.9%	4.7%	4.2%	-0.5%	KOSDAQ	753.52	-1.74	영국	7,459.88	-0.15
부동산	2.8%	2.3%	2.7%	+0.4%	DOW	26,559.54	+0.42	독일	12,222.39	+0.57
금융	3.2%	-2.1%	-0.5%	+1.6%	NASDAQ	7,998.06	+0.02	프랑스	5,580.38	+0.31
산업재	6.8%	-1.8%	-1.1%	+0.7%	S&P 500	2,905.03	+0.16	스페인	9,581.90	+0.34
커뮤니케이션	0.6%	-2.1%	-1.9%	+0.2%	상하이종합	3,250.20	-0.40	그리스	778.42	+0.64
S&P500	3.5%	-4.3%	-3.9%	+0.4%	일본	22,090.12	-0.84	이탈리아	21,956.59	-0.20
필수소비재	1.4%	-5.0%	-4.1%	+0.9%						
경기소비재	0.1%	-6.3%	-6.3%	0.0%						
IT	-1.9%	-10.6%	-10.6%	0.0%						
소재	6.9%	-11.7%	-11.6%	+0.1%						
에너지	16.6%	-22.9%	-27.2%	-4.3%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바이오 업종 하락 지속

트레블러스(+2.25%)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철도 운송회사 유니온 퍼시픽(+4.36%)도 운임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유니온 퍼시픽 CEO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분쟁에 따른 곡물 등 물류가 축소되고, 일부 지역 추운 날씨 등이 문제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발표했다. 유나이티드헬스(+2.26%), 휴마나(+3.35%) 등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산업재 회사인 하니웰(+3.79%)은 견고한 실적과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캐터필라(+1.04%), 디어(+2.18%), 보잉(+0.68%) 등 여타 산업재 종목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동반 상승 했다.

반면, JP모건(-0.73%), 씨티그룹(-0.97%), 모건스탠리(-1.47%)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 했다. 한편, 담배제조회사들인 알트리아(-3.22%), 필립모리스(-1.16%) 등은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담배 구매 최소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법률안을 5월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화이자(-1.25%), 머크(-0.99%) 등 제약회사와 암젠(-2.74%), 길리어드사이언스(-0.47%) 등 바이오 회사들은 오늘도 약가인하 이슈가 지속되며 매물이 출회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6%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1.32%	중형 가치주 ETF(IWS)	+0.18%
소매업체 ETF(XRT)	-0.48%	소형 가치주 ETF(IWN)	-0.41%
금융섹터 ETF(XLF)	-0.29%	대형 성장주 ETF(VUG)	+0.29%
기술섹터 ETF(XLK)	+0.28%	중형 성장주 ETF(IWP)	+0.1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0%	소형 성장주 ETF(IWO)	-0.00%
인터넷업체 ETF(FDN)	-0.15%	배당주 ETF(DVY)	-0.08%
리츠업체 ETF(XLRE)	+0.7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9%
주택건설업체 ETF(XHB)	+0.4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0.57%	미국 국채 ETF(IEF)	+0.24%
헬스케어 ETF(XLV)	+0.16%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66%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0.14%	Long/short ETF(BTAL)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6.88	-0.53%	-0.36%	-0.21%
소재	362.00	+0.11%	+0.82%	+3.18%
산업재	659.70	+1.11%	+2.63%	+4.87%
경기소비재	943.97	-0.05%	+1.38%	+4.49%
필수소비재	585.35	-0.04%	+1.24%	+2.23%
헬스케어	993.64	+0.14%	-5.32%	-7.02%
금융	453.66	-0.24%	+2.61%	+4.75%
IT	1,365.38	+0.28%	+2.02%	+3.62%
커뮤니케이션	165.97	+0.14%	+1.92%	+3.41%
유틸리티	290.64	+0.02%	-1.09%	-1.35%
부동산	219.86	+0.75%	-2.69%	-1.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등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213 계약)에 힘입어 0.90pt 상승한 287.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6.1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1 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1 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축소된 점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KOSPI 200 기준으로 지난 9 월 말 12 개월 Fwd 영업이익은 214 조원을 기록 했으나, 현재 160 조원을 하회하는 등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며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 왔다. 그러나 미 증시에서 보듯 향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추는 시기가 다가오면 투자심리 개선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수출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은 OECD 경기 선행지수로 이야기 되는 글로벌 경기와 동행 한다. 그런데 최근 유럽과 중국, 더불어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늦어도 2 분기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수출도 2 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 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둔화가 조만간 멈출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한국 증시가 비록 낙폭이 컸지만,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재 부각된 점을 감안 반등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오늘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매매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과 기관의 매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애틀란타 연은 미 1 분기 GDP 성장률 2.8%로 상향 조정

3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6% 급증 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1.25 증가하는 등 미국 소비가 회복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2 천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20 만 1,250 건으로 고용시장 개선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4 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전월(13.7)이나 예상치(10.2) 보다 둔화된 8.5 로 발표되었다.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1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2.8%로 상향 조정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소매판매 증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달러 강세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욕구가 높아져 있어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미국 소매판매가 견고함을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개선된 경제지표 결과로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는 제조업 PMI 가 예상을 하회한 49.6 으로 발표되었고, 독일 제조업 PMI 도 44.5 로 발표되자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독일 및 유로존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 가 예상을 하회한 경제지표 결과는 부담이었다. 다만 미국 소매판매가 크게 개선되었고,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1분기 성장률에 대해 2.8%로 상향 조정한 점은 하락폭을 제한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철근은 0.99% 하락으로 마감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4.00	+0.38	+0.66	Dollar Index	97.449	+0.45	+0.28
브렌트유	71.97	+0.49	+1.61	EUR/USD	1.1233	-0.56	-0.18
금	1,276.00	-0.06	-1.34	USD/JPY	111.97	-0.08	+0.28
은	14.955	+0.11	+0.59	GBP/USD	1.2990	-0.41	-0.52
알루미늄	1,867.00	+0.92	+0.38	USD/CHF	1.0157	+0.51	+1.27
전기동	6,476.00	-1.22	+1.06	AUD/USD	0.7149	-0.42	+0.35
아연	2,767.00	-1.86	-3.42	USD/CAD	1.3386	+0.34	+0.02
옥수수	367.25	+0.07	-0.41	USD/BRL	3.9269	-0.34	+1.73
밀	448.25	-0.44	-3.71	USD/CNH	6.7092	+0.47	-0.28
대두	894.25	+0.20	-1.60	USD/KRW	1136.90	+0.19	-0.22
커피	92.90	+3.63	+0.22	USD/KRW NDF1M	1136.13	+0.44	-0.4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60	-3.44	+6.26	스페인	1.065	-3.70	+6.40
한국	1.892	-5.00	+2.00	포르투갈	1.163	-4.20	+3.50
일본	-0.027	-2.10	+2.80	그리스	3.303	-0.60	-3.60
독일	0.025	-5.50	+3.40	이탈리아	2.601	-1.00	+23.40